

‘호흡 곤란’ 맨유 ‘지성 산소’ 필요

내년 1월 경기 일정

무려 9게임 ‘살인적’

박지성 ‘활력소’ 기대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이라는 기쁨도 잠시뿐. 박지성(27·사진)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새해 초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맨유는 26일 오후 9시45분(이하 한국시간) 스톡 시티와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를 치른다.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FI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이어 지난 21일 일본에서 막을 내린 2008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다시 정상을 밟아 세계 최고 클럽으로 우뚝 선 지 닷새 만이다.

9시간의 시차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체력 부담 등 걱정이 크다. 물론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클럽월드컵 우승이 남은 시즌을 위한 특별한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클럽월드컵 참가가 프리미어리그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맨유에 그리 득 될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복싱데이(Boxing Day)’에 열린 스톡 시티전은



강행군의 시작이다. 맨유는 스톡 시티전부터 내년 1월까지 무려 9경기를 치러야 한다.

프리미어리그 6경기 외에 챔피언스(2부리그) 소속 사우샘프턴, 더비 카운티와 각각 FA컵 3라운드(64강), 칼링컵 준결승 1, 2차전을 벌인다.

스톡 시티전은 향후 맨유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경기를 덜 치른 맨유는 9승5무2패(승점 32)로 리버풀(승점 39)과 첼시(승점 38), 애스턴 빌라(승점 34)에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빠박한 일정은 위기가자 선두로 나설 기회이기도 하다.

클럽월드컵 결승에서 풀타임을 뛰며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을 경험한 박지성도 다시 맨유의 강행군에 힘을 보탬 체비를 마쳤다.

‘산소통’으로 불리며 강철 체력을 과시해 온 박지성은 대표팀 경기 등으로 장거리 이동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한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동료 존 오셔가 구단 홈페이지에 “코치진이 계획을 세워놓아 잉글랜드로 돌아갈 때는 시차로 말미암은 피로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박지성도 돌아가는 길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처럼 박지성은 자신의 경험을 선수들과도 나눴다.

오랜 부상 공백을 딛고 올해 맨유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한 박지성이 고난의 일정을 이겨내야 할 팀에 다시 소금 같은 구실을 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안정환·신영록 등

K리그 선수 140명

내년 FA자격 획득

안정환(부산)과 신영록(수원) 등 140명이 프로축구 K-리그 2009년 FA(자유계약) 선수자격을 얻었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 제4장 FA제도 제27조(권리행사)’에 따라 소속 구단과 올해 12월31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내년 FA 자격 취득 선수 140명을 공시했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올해 말까지 원소속팀과 우선 협상을 벌이고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모든 구단과 입단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번 명단을 보면 겨울 이적시장에서 ‘대어’로 꼽힐 선수가 넘친다.

올해 K-리그 챔피언 수위에서는 양상민, 조원희, 김대익, 이정수, 신영록 등 주전급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었는데 조원희와 이정수는 해외이적을 추진하고 있어서 K-리그 잔류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태용 체제’로 도약을 꿈꾸는 성남은 박진섭, 조병국, 김영철, 장학영 등 포백을 비롯해 손대호, 김상식 등 수비형 미드필더들까지 모두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다.

또 울산은 유경렬, 박동혁, 오장은, 이상호, 우성용 등이 FA 자격을 얻었다.

이중 박동혁은 J-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어 수비진 보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밖에 부산은 미국 MLS 진출 소문이 돌았던 안정환과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대구 역시 이근호를 반드시 잡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구단별로는 대전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17명), 대구(15명), 울산(13명), 전남(12명), 인천(11명), 수원, 서울, 성남(이상 10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금 향한 질주

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24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전국 남녀 스피드 빙상선수권 남자 500m경기에서 강원체고 방민준이 결승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니 위어(미국·왼쪽)와 함께 연습을 하고 있다.

‘피겨퀸’ 김연아(오른쪽)가 24일 오후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성탄절에 열리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김연아의 엔젤스 온 아이스 2008’을 앞두고 조

/연합뉴스

조재진 J-리그 감바행...2년간 연봉 32억원

‘작은 황새’ 조재진(27·전북 현대·사진)이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 재진출하게 됐다.

전북 현대는 24일 “조재진이 J-리그 감바 오사카로 팀을 옮기게 됐다”면서 “이적료는 15억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밝혔다.

올해 K-리그에 복귀하기에 앞서 2004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시미즈 S펄스에서 뛰었던 조재진은 이로써 한 시즌 만에 다시 J-리그 무대를 누비게 됐다. 조재진은 올 시즌 K-리그에서 3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고 3개 도움을 보냈다.

전북과 감바는 애초 조재진 이적료에 대해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23일 두 구단이 적정한 금액에 합의했고, 이날 최종 합의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조재진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째 1억엔(약 14억6천만원), 두 번째 해 1억2천엔(약 17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감바가 계약 기간 2년에 2억2천엔(약 32



억엔) 정도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까지 조재진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시미즈에서 3년6개월을 뛴 경력이 있는 그가 J-리그에서도 충분히

히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J-리그가 내년부터 구단별 용병 보유 한도와는 별도로 아시아 선수 1명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아시아쿼터제’를 도입한 것도 감바가 적극적으로 나선 동력이 됐다.

조재진도 유럽 빅리그 진출에 실패했던 만큼 J-리그에 다시 진출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최근 연고 현상 등으로 K-리그에 남는 것보다 일본에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8년 월드컵 축구 유치

스페인·포르투갈 함께 신청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18년 월드컵 축구를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스페인축구연맹(RFEF)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포르투갈과 함께 2018년 월드컵 유치를 정식으로 신청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이러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FIFA는 2010년 12월 총회 때 두 대회 개최지를 한꺼번에 결정한다. 스페인은 1982년 월드컵을 치렀고 포르투갈은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10개의 새로운 경기장을 건립했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스페인-포르투갈이 잉글랜드, 네덜란드-벨기에와 함께 강력한 개최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호주와 중국, 멕시코, 러시아도 대회 유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